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맞손’

임실군-NH농협 임실군지부, 업무협약 체결…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임실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거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금체불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내 금융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에 나선다.

군은 26일 심 민 군수와 NH농협 임실 군지부 이재문 지부장 등 군지부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 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군지부는 외국인 계절근 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클 링키트 300개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단체입국 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원스톱 계좌 개 설을 통한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 급여통장 모 니터링을 통해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와 고용주 임금체불 사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금융서비스가 낮 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접근성을 높 이고, 안전하게 급여를 관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안 되고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후 계좌 개설 연기로 인한 임 금체불과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등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해결



임실군은 26일 심 민 군수와 NH농협 임실군지부 이재문 지부장 등 군지부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계절근로자 입국 일정을 은행과 사전 공유해 은행 측이 단체 계좌 개설을 원활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여 송금을 위한 외국 인 등록 후 신속한 계좌 개설, 안전한 해외송금 서비스와 수수료 우대지원, 금융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관리해 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안정적인 국내 체류 생활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 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불편을 해소하 고 임금체불이나 불법 착취 등을 예방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 으로도 근로자 권리 보호와 농가의 안 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육성한다

남원시, 2030년까지 6개 주요 작목 중심 생산·유통분야 육성

남원시가 2030년까지 포도, 복숭아 등 6개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규모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현재 ‘춘향에인’으로 2013년부터 채소류, 과일류 등 총 35개 품목에 활용되고 있으며, 타 지역 프리미엄 공동브랜드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자랑하는 ‘춘향에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 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취급액 증대와 수상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우 수한 성과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단 위계 없는 단일브랜드 체계로는 최고급 이미지 형성에 한계가 있어, 프리미엄 라인인 ‘춘향에인 진’ (가칭)을 신설, 브랜드에 위계를 부여하여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 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분야와 유통분야를 동시 에 육성한다. 생산분야로는 재배환경 을 개선하고, 신기술 교육 및 농가 조 직화를 통해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 농 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분야 로는 기존 브랜드인 ‘춘향에인’을 더 욱 철저히 관리하고, 동시에 프리미엄 농산물 ‘춘향에인 진’ (가칭)을 통해 전국 주요 백화점, 금융기관·기업 선 물시장 등 신규 출하처를 발굴하여 안 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장류축제, 11개 읍·면 먹거리 부스 준비 박차

전통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각 읍·면 특 색을 살린 ‘장맛 나는 먹거리 부스’ 준비에 한창이다.

축제장에는 순창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을 위해 11개 읍·면이 직접 운영 하는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며, 군은 다양한 장류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이고자 22일부터 26일까지 ‘맞춤형 먹거리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에는 우석대학교 호텔조 리학과 RISE 추진단 교수진과 음식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을 돌며 읍·면 별 대표 메뉴 개발, 합리적 가격 책정,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전략을 함께 모

색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주메 뉴 발굴 △축제 분위기를 살린 판매·홍보 아이디어 △바가지요금 없는 믿 을 수 있는 가격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등 먹거리 부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컨설팅을 바탕으로 각 읍·면은 특 색 있는 대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 다.

/순창=이양원 기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

8. 26. (화) 10:00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남원시는 26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지역 주민 맞춤형 건강 지원

남원시는 26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경식 시장, 한국 증진개발원, 전북자치도 및 지역 기 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건 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생활권에 밀착한 맞춤 형 건강 지원을 위해 조성된 소생활권 기반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시민 친 화적인 건강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 김, 센터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주민 휴식 공간인 쉼지공영도 조성해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센터 개소는 남원시가 기 존 보건소 중심의 단일 구조를 넘어, 생활권 가까이에서 예방·관리·체협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을 마련한 것으로, 시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보 건의 새로운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건립은 남원시가 지역 건강지표 분

석과 시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건 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 정되면서 본격 추진, 이후 사전 조사 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차장 및 쉼지공원 부지 추가 확보 등을 통 해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내실 있는 건강관리 인프라를 갖췄다.

센터에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체성분 분석기(인바디) 등 기초 건강검진이 가능한 통합관리실이 마 련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건강·영 양·운동 상담을 통해 손쉽게 건강관 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건강체험관, 비만관리 프로그램, 한의약 기공체조 등 생애주 기별 건강 교육과 슬로우 조깅동아리 등 주민 주도형 건강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 건강생 활지원센터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 지 킨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 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 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옥정호 천리길 행복걷기’ 9월 27일 개최

임실군체육회와 전북생태관광육성지 원센터 주관으로 오는 9월 27일 오전 9 시 옥정호 봉어섬과 천리길 일원에서 ‘전북 삼천리길 페스티벌 in 임실 - 2025 옥정호 천리길 행복걷기’를 개최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고, 참가 신 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임실군청과 임실군체육회,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 순으로 3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섬 멸한 전승지를 기념해 조성된 양대박 장군 윤암 전승지에서 출발하여 봉어

섬길과 출렁다리를 지나 봉어섬 생태 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6km 탐방 코스 를 걷게 된다.

행사 당일에는 오전 8시에 전주월드 컵경기장과 윤암면 쌍암리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참가자 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점심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코스 곳곳에는 천리길 해설 사와 안전요원이 배치돼 쾌적하고 안 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지역 음악 밴드와 난타 공연이 식전 공연으로 펼 쳐진다.

/임실=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농경지 분석 서비스 무료 지원

남원시는 경작지의 토양환경 특성을 통한 토양비료 사용처 방,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농업 용수 분석 등 첨단장비 확대를 통해 농경지 분석 서비스를 연 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토양분석실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휴토피라 연계된 분 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단위 토양정보를 토대로 토양환경에 따른 작물별 맞춤형 비료량(N, P, K, pH, EC)을 추천, 가축분뇨 부속도에 따른 퇴 액비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농 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지하수 판단하는 등의 서비스를 관내 거주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필 수적인 시설이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토양 분석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이전과 함께 여러 사업비 를 확보하여 5.5억 원 규모의 전 문분석장비(양이온분석, 유기물 분석, 토양산도 측정장비 등)를 도입하여 이전보다 정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벌 쏘임 초기 대응 당부

남원소방서 최승범 구급팀장은 초가을에 빈번히 발생하는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벌은 강한 향과 화려한 색에 민감하므로 야외활동 시에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향수나 헤 어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는 것 이 좋으며, 야외에서는 음식물이 나 음료수를 방지하지 않아야 하고 벌이 공격할 때는 머리를 감싼 채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침착한 대처 가 중요하며, 벌침이 피부에 남 아 있다면 신용카드와 같은 평 평한 도구로 삼살 밀어내어 제 거하고, 쏘인 부위는 깨끗한 물 로 씻은 후 얼음 찜질을 해야 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알 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즉시 119 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승범 팀장은 “올해 남원 관 내 25건의 벌 쏘임 출동이 있었 다”라며 “안전을 위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생활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